

[전시 소식] 우순옥 展

16 May, 2016 | 오진희 기자



우순옥, '패러드로잉(Paradrawing)'.

◆우순옥 '무위예찬'전= 중견작가인 우순옥이 5년 만에 여는 개인전 '무위예찬'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 '무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라진 장소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대상들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독일 쾰른 근처에 위치한 브루더클라우스 채플 (BruderKlaus-Kapelle)로 이르는 길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작품 '무위의 풍경'(2014)은 고요한 명상의 장소에서 침묵과 비움을 통해 정신을 해방시킨다. 영상작품 '파라드로잉'(2014/2016)은 '비움의 프로젝트'로, 2008년 폐쇄된 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된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1의 모습을 멀리서 긴 호흡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이 공원은 주거단지와 문화 시설을 세우겠다는 베를린 시의 계획에 반대해 시민 주도로 조성된 공원이다. 우순옥 작품의 주요 주제는 '시간'이다. 작가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어 새로운 의미의 층위를 덧씌우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개인전에 선보인 2007년 성북동의 낡은 건물 창문에 횡단보 도를 가로지르며 글자를 붙여나간 퍼포먼스 영상작품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다'는 삶의 파노라마 가 느껴지는 하나의 예술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6월 12일까지.